

가고시마 (쓰루마루) 성의 역사

鹿児島(鶴丸)城の歴史

History of Kagoshima (Tsurumaru) Castle

鹿児島(鶴丸)城的历史

鹿児島(鶴丸)城的歷史

가고시마 성은 게이초 6(1601)년 경, 후에 초대 사쓰마 번주가 된 시마즈 이에히사(제 18대 당주)가 건설에 착수한 성으로 쓰루마루성이라는 이름으로 친숙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축성 초기에는 배후의 산성(성산)에 혼마루, 니노마루를 두고 산기슭에 저택을 두어 번주의 거처로 하였습니다. 또, 평성의 삼면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마즈 씨가 가마쿠라 시대부터의 슈고로서 산성과 저택으로 구성된 성관이라는 무가의 전통이나 격식을 중요시하여 축조한 것입니다. 에도 시대의 후반이 되면서 혼마루, 니노마루는 산기슭의 거처를 가리키게 됩니다.

메이지 초기에 작성된 나루오 쓰네노리 도면에 의하면 혼마루에는 대소 100개 이상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노 무대도 있었으며 헤이세이 26(2014)년의 발굴 조사에서는 그 일부가 발견되었습니다. 또, 헤이세이 29(2017)년의 발굴 조사에서는 정원의 일부로 보이는 배석 등이 나왔습니다.



▲ 메이지 5(1872)년의 가고시마 (쓰루마루) 성



▲ 「덴포 연간 가고시마 성하평면도」 (일부)